

유경상 지음 | 카리스

『크리스천 씽킹』을 읽고

안성희

“머리에서 가슴까지 70년이 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 70년이 걸린다.”

이 문장은 김수환 추기경과 이어령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필자가 엮어본 것이다. 이 문장에는 주어가 없다. 주어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넣어본다면 어떤 느낌이 일까?

기독교 세계관이 한국에 뿌리내린지 어느덧 30년 가까이 흘렀다.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기독교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서인지 다분히 이론적 지식 위주로 펼쳐진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일부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실천적 지식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불멘소리를 하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곤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기독교 세계관 자체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는 머리에서 시작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가슴으로 그리고 발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대한 일부 회의적인 시각에도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 기독교 세계관이야말로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탁월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지금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회의론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의

성육신이 필요한 때이다.

『크리스천 씽킹』은 기독교 세계관의 성육신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대학생 시절부터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한 분야에 헌신해온 열정적인 사역자이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역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그동안 봐왔던 기독교 세계관 책과 분명한 차별성이 있다.

많은 이들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세계관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기독교인이라면 한 발 더 나아가 바른 성경적 세계관(기독교 세계관)의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이론적 지식은 있으나 실천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아무리 좋은 원리라 할지라도 그 원리를 전달하는 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필자는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던 시절 청소년을 위한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섬긴 적이 있다. 이 학교에서는 입학 전에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된 서적을 읽고 들어와야 했는데, 준비하는 입장에서 책을 찾



아보면 막상 청소년들에게 읽힐 만한 기독교 세계관 책이 턱없이 부족했다. 만약 이 책이 그때 출간되었다면 어떠했을까? 당연히 이 책을 입학 전 추천도서로 선정하였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내용이 빈약한 것은 아니다. 다음 세대에겐 기독교 세계관을 쉽게 전달한다는 것은 내용의 쉬움이 아니라 전달의 쉬움을 말한다.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용은 전혀 가볍지 않다.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물론 현장에 대한 분명한 이해, 전달 기술에 대한 비법(노하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요소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이 책은 청량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청년, 기독교 학부모, 기독교 교사들도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에 이 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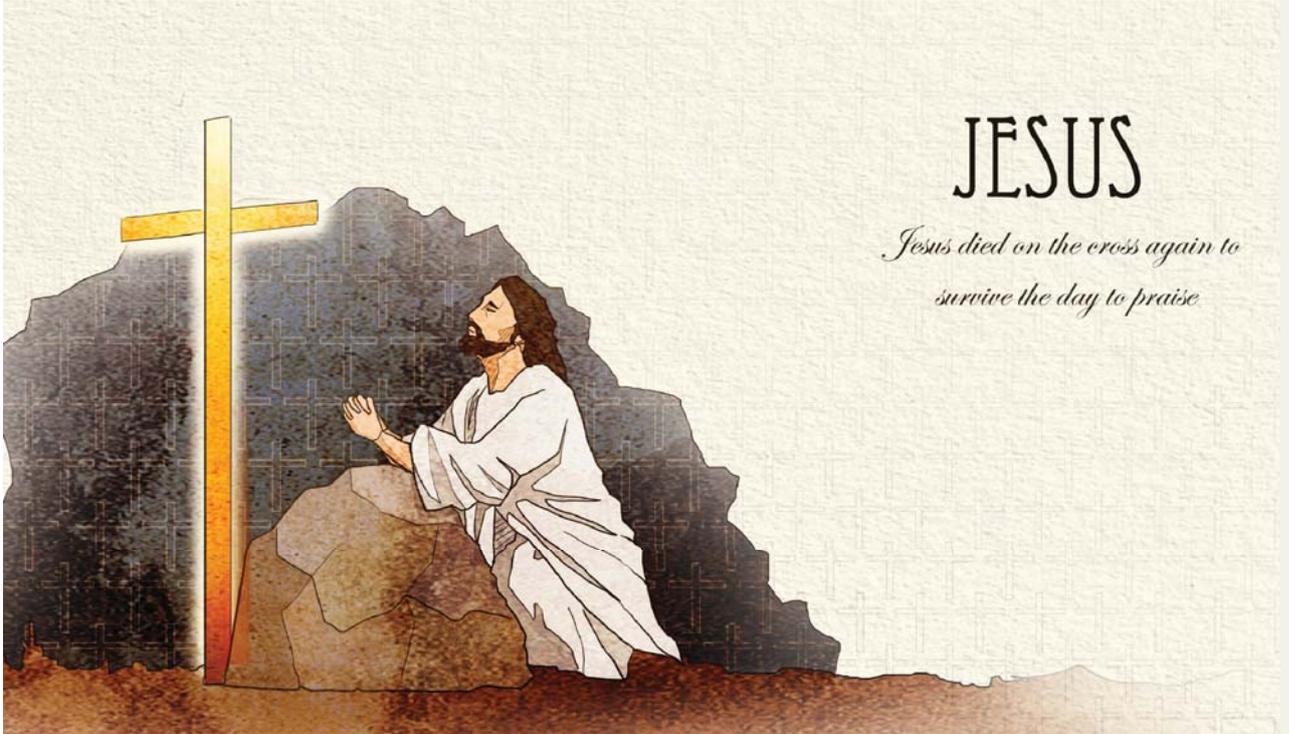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책의 제목이 눈에 띈다. 제목만 보면 이 책이 기독교 세계관 책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된다. 왜 기독교 세계관을 ‘크리스천 씽킹’이라고 표현했을까? 양승헌 목사님께서 쓰신 『크리스천 티칭』이란 책이 있다.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이 책은 기독교 교육이란 용어 대신 ‘크리스천 티칭’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학문적이고 관념화 되어가는 기독교 교육을 ‘지금 여기(here and now)’에 필요한 사역적 기능으로 변환하기 위해 ‘크리스천 티칭’이란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 강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먼저 배운 사역자에게 어울리는 용어이다. 저자가 기독교 세계관을 ‘크리스천 씽킹’이란 용어로 바꾼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본질에 충실하다면 현장에 적실성 있게 용어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은 책 곳곳에서 묻어난다. 저자는 기독교 세계관의 요소인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을 하나님(God)에 대한 생각, 죄(Sin)에 대한 생각, 예수 그리스도(Jesus)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CTT(Christian Thinking Tool)를 제시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일상 주제와 연결하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CTT는 직접 해보아야 제맛이며, 왜 CTT가 이 책의 백미인지 깨닫게 된다. 공자가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만 하나 직접 해본 것은 이해된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직접 해보면 들을 때와는 태도가 달라진다. CTT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기를 추천한다. 수련회나 주일학교 2부 시간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이다.

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이 책은 한국교회의 신앙과 삶의 분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 속에서 비호감의 인상을 주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상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그러나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인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생각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생각이 삶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열매까지 맺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며, 이러한 열매는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 열매는 예수님의 사역 내내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 질문에 저자는 실제 인물을 소개함으로 답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칼뱅과 윌리엄 캐리다. 보통 칼뱅을 신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이 책에서 칼뱅은 당시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줄 뿐 아니라 실제적인 방역까지 했던 인물로 소개된다. 또 캐리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이었던 사티 제도(남편이 죽으면 아내까지 화장시키는 제도) 폐지, 남녀 공립학교 설





JESUS

Jesus died on the cross again to survive the day to praise.

립, 의료 진료소 건립 등을 통해 참된 제자로 서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소개된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구원은 영혼구원(눅 19:10)과 만물회복(엡 1:10, 골 1:20)이 균형잡힌 구원 즉 '총체적 구원'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열매는 바로 '총체적 복음'이다. 존 스토틀의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IVP)과 최근에 출간된 매트 찬들러의 『완전한 복음』(새물결플러스)에서 강조한 '총체적 복음'이 결국에는 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사실에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운동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참다운 제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저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세상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제아무리 좋은 구호와 원리가 있어도 그것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으면 한낱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신앙과 삶이 일치된 바른 기독교의 회복은 바로 나 자신의 바른 세계관의 정립과 실천에서 시작한다는 깨달음은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주여!



안성희 청년시절 "어떻게 하면 신앙과 삶, 직업, 공부, 일상이 통합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세계관을 만나 현재 CTC(크리스천생강센터)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헌신하여 기획행정팀장 및 연구원으로, 그리고 남포교회에서 중등부 담당 교역자로 섬기고 있다. 예수전도단에서 청소년사역 간사로 섬겼으며, 이후 합동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다.

